'지식의 총체'를 집대성하려는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

서양 계몽주의 시대 백과전서파의 실험…
종교 추방하고 세속화된 근대의 인식론 제시해

최갑수 |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백과전서》는 형태학적 논리와 인식론적 논리를 결합시켜 '천상의 진리'를 학문세계에서 몰아낸 계몽사상의 상징이다. 그것은 애초에 기존의 통념과 사회적 관행을 타파하려는 비판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의도는 후대의 백과사전에서는 살아남지 못했다. 오늘날 백과사전은 계몽적 의도가 제거된, 광범위한 정보가 담긴 참고서를 지칭하는 표준어일 뿐이다.

흔히 《백과전서》는 계몽사상의 대표적 성과인 동시에 그 운동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되도록이면 최대한의 포괄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지식이란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정보의 총체라는 관념인 계몽사상의 기본전제가 《백과전서》를 통해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과사전의 역사와 관련해 《백과전서》의 위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껏 별다른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여기서는 하나의 지식체계로서 백과사전이라는 독특한 출판형태가 등장했다는 관점에서 《백과전서》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백과전서》의 출간에 관한 서지학, 이어서 백과사전으로서 《백과전서》의 성격, 마지막으로 《백과전서》가 지녔던 지식체계의 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20년에 걸쳐 28권으로 마무리해

《백과전서》는 '과학, 예술 및 산업에 관한 체계적인 사전'을 부제로 달고 있다. 사실 우리말로 '백과사전'이란 곧 부제목의 의미가 관행화한 것이며, 반면에 '인사이클로피디어'는 '원'(圓 : 전체계통)과 '지식'을 뜻하는 희랍어의 복합어에서 파생한 것으로 '지식의 총체'를 뜻한다. 이것이 '백과사전'을 말하는 근대적인 용례로 확립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백과전서》다. 《백과전서》는 계몽사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백과사전의 역사에서도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다.

단순히 어휘나 용어의 의미만이 아니라 지식의 총체를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는 발상은 18세기의 산물이기는 했지만, '백과전서파'가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백과전서》는 원래 영국인 체임버스가 1728년에 2권(2절판)으로 펴낸 《백과사전》의 1741년도판(본문 4권, 도판 1권)을 불어로 번역하려는 의도에서 1745년 파리에 거주한 한 독일인이 기획했던 것이다.

다음 해에 디드로는 역자로, 달랑베르는 과학 분야의 책임자로 가담했으나, 1747년 10월에 편집책임자가 사퇴함에 따라 위의 두 사람이 편집을 책임지기에 이르렀고 다음 해에는 인원이 보강됐다.

그러나 20년 넘은 기간 동안 광범위한 지식을 축적함에 따라 디드로는 아예 새 책을 만들 것을 결심하고는 1750년 11월에 10권(2절판, 도판 2권 포함)짜리 백과사전을 제작하겠다는 내용의 '취지문'을 배포했다. 주문이 폭주하는 가운데 1751년 6월과 1752년 1월에 제1권과 2권이 나왔으나, 루이 15세의 국왕참사회는 종교적 견해를 문제삼아 2월에 출판 금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도서행정의 책임자였던 관용적인 말제르브의 '묵인' 및 일부 궁정세력의 지원 아래 출간이 계속돼 1753~57년에 걸쳐 매년 1권이 나왔다. 《백과전서》의 출판사는 1759년에 다시 큰 시련을 맞이했으나 해외출판의 협박을 무기로 정부측과 타협에 성공해 1765년에 본문의 나머지 10권을 한꺼번에 내놓고, 1762~72년에 걸쳐 도판 11권을 연속적으로 출간했다. 마침내 20여년의 세월 끝에 모두 28권으로 이뤄진 《백과전서》의 기획은 일단 마무리됐다.

사회의 통념과 관행 타파하려는 의도 담겨

하지만 《백과전서》의 출간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백과전서》가 상업적으로 성공한 데 자극받아 1770년에 재판본의 판권을 획득한 파리의 유명한 출판업자 팡쿠크는 1776~77년에 '증보본' 5권(본문 4권, 도판 1권)을, 1780년에는 2권으로 된 《분석적 목차(색인)》를 내놨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백과전서》는 모두 35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규모다. 엄격한 의미의 《백과전서》 28권만을 보더라도 항목이 모두 7,818개고 단어는 총 2천만개에 달한다. 기고자는 밝혀진 것만으로도 150명이 넘으며 그야말로 당시 집필 가능한 계몽사상가들을 총망라했다. 초판으로는 모두 4,225질이 나왔으며, 1780년까지 출간된 다른 4절판, 8절판본들을 모두 합친다면 대략 2만5천질이 팔렸다고 한다. 가격은 초판본이 질당 980리브르, 재판본은 질당 384리브르였다. 당시 파리 숙련공의 하루 일당이 1리브르였음을 고려한다

면, 그처럼 비싼 책이 그 정도나 팔렸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전술했듯 《백과전서》의 기획은 독창적이기는커녕 '선배' 백과사전을 답습한 것이었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드러난다. 우선 그것의 진열방식은 알파벳순서를 따른다. 서양에서 고 중세의 사전들이 주제별로 편찬됐다면, 1500년 이후로는 알파벳순서가 보편화됐고 《백과전서》도 이를 따랐다. 또한 참고문헌 소개와 도판 삽입, 또는 상호대조표나 '지식의 나무'를 통해 지식분류법을 제시하는 방식 역시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다.

하지만 《백과전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독창적이다. 하나는 기고자들이 자신이 집필한 항목에 서명을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전 검열이라는 당시의 관행이 일으킬지도 모를 편집책임자들의 난처함을 모면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전문가를 모신다는 배려가 배어 있는 것이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색인의 등장이다. 이것은 디드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팡쿠크가 작성케 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종교를 근대적 학문세계에서 추방시켜

《백과전서》의 진정한 독창성은 형식보다는 내용에 있었다. 디드로는 무엇보다도 《백과전서》를 통해 정보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지식의 진보를 보여주려고 했다. 즉 그것은 수준 높은 참고서적에 머물지 않고 독자들에게 기존의 통념과 사회적 관행을 타파하게 만들려는 비판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오늘날 《백과전서》를 기억하는 가장 주된 이유(사회적 비판으로서의 백과사전)가 후대의 백과사전에서는 살아남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팡쿠크의 비극적인 실험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백과전서》의 이 이념을 프랑스혁명기 이후에도 되살리기 위해 그것의 후속판으로서 《분류체계에 따른 백과사전》의 출간을 기획했다. 그것은 1783년에 첫권이 나온 이래, 그가 죽고 사위와 딸이 사업을 계승해 1832년에 본문과 도판을 포함해 모두 167권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출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그 누구도 《백과전서》의 야심을 되풀이하지 않게 됐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돼가는 지식의 세계를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하나의 사전을 통해 종합해낼 수 있다고는 누구도 믿지 않게 됐던 것이다. 하지만 '백과사전'이라는 이름은 살아남아 광범위한 정보를 지닌 참고서를 지칭하는 표준어로 자리잡게 됐다.

이처럼 《백과전서》는 19세기에 근대적인 분과학문체계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이전에 소수의 유능한 편집책임자들이 지식의 전체적인 지형 변화를 가까이에서 조감할 수 있었던 전통적인 지식생산체제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백과전서파들은 《백과전서》를 통해 독자들에게 기존의 통념과 사회적 관행을 타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진은 백과전서파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인 달랑베르·디드로·루소·몽테스키외(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런 면모는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제시한 '지식의 나무'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은 자신들이 번역하려 했던 체임버스로부터 하나의 세계지도로서 지식의 나무를 제시한다는 착상을 배워왔지만 사실상 신학을 학문의 여왕의 자리에 위치시켰던 그의 나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체임버스가 참조했던 원류인 베이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편, 베이컨의 나무를 지식세계의 변화에 맞게 조정했다. 우선 베이컨에게 지식의 나무는 '신의 학문'과 '인간의 학문'을 각기 주제로 하는 두 그루였다. 디드로와 달랑베르는 이것을 한 그루의 나무로 만들면서 '신의 학문'의 영역을 '이성'의 한쪽 주변 구석에 위치시켰다. 다음으로 그들은 베이컨이 '인간의 학문'을 분류한 방법, 곧 기억력(역사)/상상력(시)/이성(철학)의 3구분법(동양의 '문·사·철'의 구분과 얼마나 유사한가!)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분야별 분량 배분을 자연철학쪽으로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편성했다. 종교를 철학에, 신의 철학을 자연철학에 종속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속화된 근대적인 인식론적 전경을 제시했던 것이다.

《백과전서》의 역사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형태학적 논리와 인식론적 논리를 결합시켜 정통의 종교를 지식의 지도에서 몰아내고 그것을 알 수 없는 영역에 자리매김함으로써 근대의 학문세계로부터 추방했다. 모든 지식을 감각인식과 반응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마침내 '천상의 진리'를 학문의 세계에서 제거했던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혁명의 거대한 유위전변(有爲轉變) 속에서 새로운 학문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올랐을 때, 《백과전서》에 의해 그것을 위한 정지작업이 끝나 있었던 것이다.●